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피를 썩게 하는 영

반대생활을 해야 피가 맑아져 영생하게 된다

인간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의 주범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 세상 사람이 왜 불안과 공포,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는지?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 죽을 염려가 있는고로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사느라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따르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원인이 뭐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나라의 주체의식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불안과 공포를 주고,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의식만 제거되면, 나라는 의식만 완전히 없으면 근심이나 걱정,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사망의 영입니다.

또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피를 썩게 하는 영이고로 사람이 늙는 것도 나라는 주체의식 때문에 늙는 것이요, 병이 걸리는 것도 역시 나라의 주체의식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런고로 사람이 잘못되는 원인이 전부 나라는 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 갈래?

그런고로 “나를 항상 버려라.”는 말씀이 성경과 불경에는 있지만 나를 버리는 비결, 나를 없애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 때문에 정욕도 일어나고, 나라는 의식 때문에 욕심도 나오고, 나라는 의식 때문에 사기도 치게 되고, 나라는 의식 때문에 도둑질도 하게 되고, 나라는 의식 때문에 살인도 하게 되고,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결과적으로 나라는 주체의식만 제거하면 이제 죄를 지어야 할 수가 없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제거되지만 하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 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하는 비결,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없애는 비결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하는 비결을 알지만 알면 바로 하나님 되는 비결이 될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젓값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시



조희성 구세주

말하자면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도 성경과 불경에 쓰여 있는데, 욕심이 죄라면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림이 아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므로 욕심이 죄라면 바로 나라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바로 마귀 중”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 나라는 의식이 곧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이고로 악령이요, 사람을 해치는 마귀 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깨내고, 마귀의 숨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마귀들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흠으로 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논하니, 마귀가 더욱 당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공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는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이 있는 날부터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활동하게 되니, 생활이 날로날로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망은 생명의 영에서 나온다

희망이라는 건 바로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이요, 생명의 영이 되는 마음속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지, 죽음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속에서는 절망만 나오고, 죽음의 영속에서는 실망만 나오고, 죽음의 영속에서는 바로 낙심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그 생활이 날로날로 쇠퇴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가 점점 썩어서 병 걸려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희망을 갖기만 하면 그 사람 몸속에 흐르는 피가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가 조성되어 죽을병도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반대 생활이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구세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슬 내리는 것도 보여주고, 구세주론을 논하고, 구원론을 논하고 또한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선악과가 뭐다, 생명과일이 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6000년간 우리 조상대대로 마귀에게 죽음을 당한 그 원수가 바로 나라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말로 천하의 역적이요, 원수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를 맞아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난 척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

이 마귀니까 좀 더 때려 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때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때리는 사람에게 도리어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그 사람을 더욱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마귀기 때문에 나를 짓기에는 심정으로 반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을 이기고, 나라는 것을 죽이고, 나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노력을 하고, 매일 같이 애를 쓰고 기를 써야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라는 주체의식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나라고 하는 풍

구덩이와 같은 마귀새끼를 청소해야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한테 욕을 먹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욕을 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 나라고 하는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바로 상대방이 미워할 때 좋아하고 상대방이 욕을 하고 때릴 때에 상대방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992년 2월 8일 주님 말씀 중에서
원현옥 기자 정리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사람들은 노화와 죽음은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무섭도록 빨리 변화하는 세상이다.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옛날 삶의 패턴의 관성에 따라 과거의 것만 옳다고 집착하고 고집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만 믿게끔 되어 있다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우리 영생학회는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세계를 확연히 보고 말하며, 그 세계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뇌세포도 재생 가능하다

과거, 뇌세포는 사춘기가 지나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신경과학자들은 믿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도 적지 않았다. 물론 아는 만큼, 본 만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뇌도 젊은이의 뇌 못지 않게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든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탐구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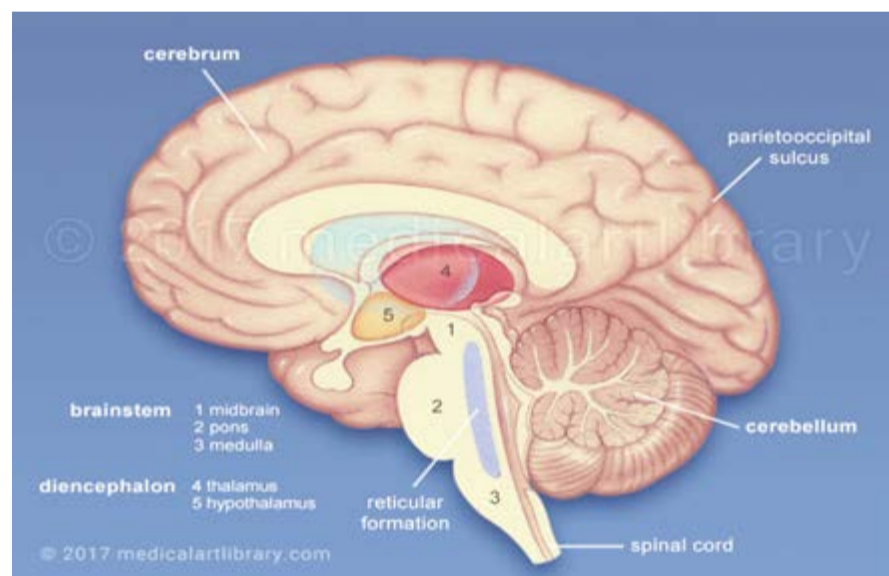
구를 거듭할수록 꿈에 그리던 인간의 불로불사의 실현화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의대 마우라 볼드리니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이 평소 질병 없이 건강하다가 급사한 28명(14~79세)의 뇌 조직 중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海馬: hippocampus)를 조각조각 잘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생전에 질병이 없이 건강했던 사람들이다. 인지기능도 정상이었으며 새로운 신경세포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抗)우울제 같은 약을 사용한 일도 없었다. 결과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새로운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중간단계 신경 전구세포(intermediate neural progenitor)와 미성숙 신경세포의 수가 비슷했고 해마의 크기(용적)도 차이가 없었다.”고 볼드리니 교수는 밝혔다.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에게서도 새로 만들어진 신경세포가 발견됐다. 다만 노인들은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

노화와 죽음의 근본원인: 피의 산화(썩음) 3



지는 신생 혈관 형성(angiogenesis)이 젊은이보다 부족했고 해마의 한 부위인 치상회(dentate gyrus)의 경우 신경 전구세포 수가 젊은이들보다 적었다. 치상회는 새로운 삽화기억(episodic memory) 형성을 담당하는 부위다. 삽화기억은 일상적 사건이나 개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노인이 젊은이처럼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도 인지기능 회복력이 약한 것은 해마의 신생 혈관 형성 기능과 조직 내 세포와 세포 간 연결 기능이 약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볼드리니 교수는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전문지 『셀 줄기 세포(Cell Stem Cell)』에 발표했다. 이 다음 단계의 연구는 정상노인과 치매 노인의 해마를 비교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볼드리니 교수는 밝혔다. 노인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앞으로 규명된다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가 그분의 한계이다. 볼드리니 교수는 피가 탁해져 항산화성이 무너지면서 그와 같은 치매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의 몸에 불로불사의 프로그램을 깔자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뇌 신경 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렇지만 인류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는 선구자들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미지의 영역들이 밝혀지고 있다. 뇌신경 세포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이미 우리 영생학회에서는 뇌세포의 재생설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사람의 조직과 기관, 쉽게 말해 오장육부와 뇌까지도 신선한 피의 공급이 원활히 유통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피의 공급을 통해 기능과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정상적인 피의 상태만 유지된다면 어떠한 것도 재생 가능하다고 역설한바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생로병사의 길을 가도록 프로그램(유전)되어 있다. 이 노화와 죽음의 운명을 바꾸려면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인 윈도우 엑스피(xp)를 윈도우 세븐(7)으로 깔아 쓰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화방지 프로그램을 새로 입력하여 작

동하지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불로불사의 프로그램이 바로 승리제단에 있다. 이것만 업로드하면 질병없는 무병장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건강한 인체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恒常性)’을 구유하고 있다. 인체는 기계와는 달리 파괴된 균형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며, 닳아진 세포는 그만큼 새로 조성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인체는 늙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다. 노병 화학상과 평화상을 받은 저 유명한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음은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다. ... 이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영원불멸(永遠不滅)의 존재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육체의 조직은 스스로 재생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말하자면 그 자체가 ‘자동보수장치’와 같다.”

라이너스 폴링박사는 아는 대로 풍부한 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자동보수장치의 비밀의 열쇠가 바로 “피의 항산화, 정상화”에 있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